"창업한 젊은 세대 외롭지 않게… 나눔의 마음으로 도움"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이 금 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으면 국가 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냐. 희망없는 젊은이를 만드는 것도 결국은 기성세대 책임이다. 창업해 도전하고 있는 (젊 은)이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시작 한 일이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후배들이 우왕좌 왕하지 않도록 길을 내주고 있는 한 선 배기업인이 있다.

자신도 갈피를 잡지못하고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던 만큼, 후배들이 같은 전 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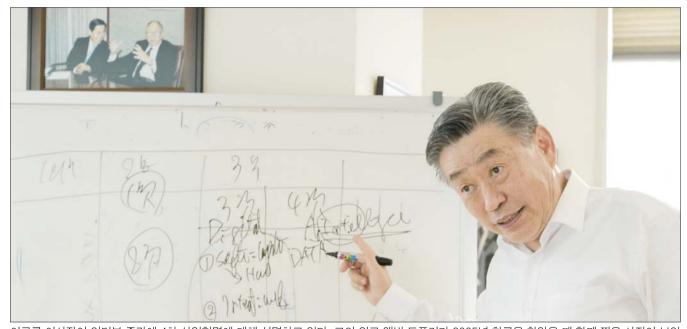
'도전과나눔'의 이금룡 이사장, 1977 년 당시 삼성그룹 공채 17기로 입사해 유통물류 부장, 인터넷 사업부장(이 사) 등을 거친 후 옥션 사장을 맡으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로키우 고, 이후엔 대표이사로 인터넷 지불결 제 회사인 이니시스 창업에 관여했던 그는 우리나라 유통·인터넷 분야의 대 표적인 1세대 인물로 꼽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 벤 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은 후 지금 은 기업들의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지원 하는 코글로닷컴 회장 직함과 함께 사 단법인 도전과나눔을 이끌고 있다.

창업한 후배들은 '도전'과 '기업가정 신'을, 회사를 성공시킨 시니어 선배들 은 '나눔'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나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라 뜻을 같 이하는 선 배 기업





이금룡 이사장이 인터뷰 중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위로 앨빈 토플러가 2005년 한국을 찾았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보인

선배 기업인들과 매달 셋째주 수요일 '나눔 테이블' 후배들에 멘토역할, 기업가정신・네트워크 도움 "성장 과정 즐겨야⋯ 고객에 인정받을때 가장 행복"

을 같이 모셨다. 매달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조찬 포럼에서 선배들은 '나눔 테이블'을 위해 기부를 하는 동시에 멘 토를 하고, 창업한 후배(멘티)들은 포 럼에 무료로 참석해 기업가정신을 배우 고 네트워크를 쌓는다. 후배 기업들이 IR을 통해 투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삼성물산회장, 한국마사회장을 역임 한 현명관 회장, 다산그룹 남민우 회장, 자강산업 민남규 회장, 조인㈜ 한재권 회장, ㈜지누스 이윤재 회장, 서린바이 오사이언스 황을문 회장, 삼구아이앤씨 구자관회장, 주성엔지니어링황철주회 장이 나눔 테이블을 통해 후배들을 위한

후배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 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생, 대학 창업지원단이나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등의 추 천을 받아 멘토 들이 직접 뽑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조찬포럼에 는 지금까지 이들 선배 기업인뿐 아니 라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기업인, 재계・ 학계·금융계 인사, 장·차관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사 200여 명이 강연자로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이들의 치솟 는 에너지와 실력을 보면 안심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철옹성 같은 (기업활 동을 막는)규제를 보면 걱정스럽고 숨 이 막힌다."

이 이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가칭 '규제 개혁비례당' 창당을 주도했다. 창당을 통한 국회 입성이 결국 무산됐지만 그 가 적극 참여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었 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운명은 결국 '제도'에 달려 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유니콘 기업 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바로 제도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과거 '패스트 팔로우 시대'엔 '진흥'이 절실했다. '○○○ 진흥법'이 수 없이 만 들어졌고, 관련 단체도 우후죽순 생겼 다. 그런데 지금은 '퍼스트 무버 시대' 다. 진흥이 맞지 않는다. 예전에 만들어 진 단체들은 퍼스트 무버를 위한 '파괴 적 혁신'을 반대한다. 포지티브(Positiv e) 입법 체계에선 법에 나와 있는 것 외 에는 모든 것이 걸린다. 금융, 헬스케어, 바이오 등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사회 혁신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는 사람이 만든다.

그는 규제나 제도를 양산하는 대표적 인 집단인 정치권과 관료 사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이사장은 "예산, 법, 제도를 모두 쥐고 있는 세력 중 하나가 정치권이고, 또 다른 하나가 관료다. 이 가운데 정치 는 100% 내수산업이다. 정치는 글로벌 로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 권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관료도마찬가지다. 과거시험을봤던 조선시대나 행정고시를 보는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과거시험은 사서 삼경을 암송하거나 재술을 통해 관료를 뽑았는데, 시대가 변한 지금도 수 많은 수험생들이 같은 교범으로 공부하고 시 험을 봐 공무원이 된다. 여기서 지적호 기심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니 파괴 적 혁신을 주도할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막중한 책 임을 갖고 있는 대학과 교수 사회에 대 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지금의 대학은 주인이 교수와 재단이다. 학생이 아니다. 대학 은 이미 화석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학의 최대 고민 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줄 어드는 학생들의 빈자리를 채우는게 최 대 목적이다.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들

어진 공과대학은 기업, 공장과 항상 연 결돼 있어야 한다. 특히 우수 인재를 이 용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학 교수들을 CTO로 영입해 활용할 수 있 어야한다. 그런데 (대학에만 머물고 있 는)교수들이 이를 싫어한다. (공대는) 파워포인트로 학점 따는 곳으로 변질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이사장은 대학은 대학대로 놔두고4차산업혁명에걸맞는맞춤형인 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단체 등에서 별도의 과정을 만들어 양 산하는 체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인공지능(AI)시대다. AI는 판단(예측)기능,비서기능,맞춤기능,스 마트공장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그런 데 AI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데 이터 수집을 위해선 자바, C언어 등 개발 자가 필요하다. AI가 현재 모든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지만 개발자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 1년 짜리 데이터 언어 전문 가 과정을 만들어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 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의 마케팅 전문 인력도 수요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 교육 과정은 2년은 너무 길고, 1년이 적당하 다. 교육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군 복무 인력 을 디지털 인재로 키우는 것도 아이디 어로 내놨다. 가칭 '국방디지털학교'를 만들어, 이 과정을 거친 인재를 사이버 사령부 등에서 군 복무 기간 활용하거 나 국방 관련 다양한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에 나와선 이들이 일반 회사에 취 업해 4차 산업혁명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시절 직장생활을 시작해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이처럼 후배들 양성에 올인하고 있는 이 이사장. 그가 말하는 사업, 사업가, 기업가란 이렇다.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이 다. '성공'이란 말을 사업에서 쓰면 안 된다. 사업은 규모도 중요치 않다. 사업 은 또 등산이 아닌 여행이다. 등산은 올 라가면 내려와야하지만 여행은 과정이 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그냥 즐겨야한다. 사업을 이끄 는 기업가는 폼을 잡아서도 안된다. 결 국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이다. 고 객이 떠나면 기업은 소용없다. 고객으 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기업가는 가장 행복할 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미국 대선이 바꿔놓을 국제질서

코로나19팬데믹과대통령선거로미 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세 계 최강, 최고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11 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71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1만명을 돌파했다.

미국은 최악의 코로나 감염국이 됐 다. 일찍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가면을 벗어버린 트럼피즘은 '아메리카 퍼스 트'의 깃발 아래 보수주의자와 저소득 층을 결집했다.

저자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 교수)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 국 증시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



코로나19 X미국 대선 이후의 세계

김준형 지음 /평단

이 높다고 내다본다.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은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호 황기를 맞이했다. 법인세 인하, 개인소

득세 감면,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무 역전쟁, 저금리 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달러 약세가 빨라지고미국증시는하락할가능성이 크다고 책은 예상했다. 세금이 인상돼 기업 실적이 나빠질 수 있으며 트럼프 가 밀어주던 셰일가스, 석탄, 철강 등의 주가는 떨어지고 반도체, 전기차, 수소 차,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헬 스케어 관련 업종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책은 코로나 사태와 올해 미국 대선 결과가 바꿔놓을 국제질서, 중국과의 패권전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부문의 변화를 전망한다.

240쪽. 1만3800원. /김현정 기자 hjk1@

킹 세종 더 그레이트

조 메노스키 지음/핏북



이 아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왕이 만 들어냈다는점에 매료됐다.세종대왕에 대한 궁금증은 점차 영웅숭배의 마음으 로 바뀌었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 국인 작가가 세종대왕의 매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를 주인공 으로 쓴 역사판타지 소설.

365쪽. 1만4000원.

카운트다운 1945

크리스 월리스, 미치 와이스 지음/이재황 옮김/책과함께

1945년 8월 6일 인 류사 최초로 원자폭 탄이 투하됐다. 사 상첫원자폭탄이히 로시마 상공 580미 터에서 폭발한 날로 부터 116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 폭탄 개발이 막바지에 다 다랐을 무렵, 최종 결정권자가 급작스 레 사망했다. 1945년 4월 12일, 프랭클 린 루스벨트의 죽음으로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자 미군 총사령 관이 됐다. 책은 원자폭탄 투하 전 116 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한다.

432쪽. 2만2000원.